

1

## 수능국어 단순문 (전체개념)

먼저 용어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수능국어영역은 문제, 지문, 보기, 선지(①~⑤)로 구성이 됩니다. 간혹 선지를 보기라 부르는 학생이 있는데 ①~⑤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선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을 5지선다형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 내용연결의 개념

수능언어의 가장 큰 문제출제원리와 풀이방법은 **내용연결**입니다.

모든 문제를 일단 **내용일치**라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셔야 합니다. 모든 국어영역의 접근은 **선지의 내용이 위의 지문이나 보기에 나왔는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지문, 문제, 보기의 내용 ⇒ 선지

예를 들어

예1) 지문, 보기 : 철수는 착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2번 선지에도

2번 선지 : 철수는 착하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2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 내용연결의 보조개념 - 옳은 선지, 옳지 않은 선지

모든 선지들은 옳은 선지와 옳지 않은 선지로 나뉩니다. 모든 국어영역의 문제유형이 ‘가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 두 개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각 선지들이 옳은 선지인가 아니면 옳지 않은 선지인가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만 있다면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알아본 내용연결이라는 개념에 따르면 선지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옳은 선지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우 (문장이나 단어가 그대로 나온 경우) - 위의 예1)의 경우 -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 (문장이나 단어가 같은 뜻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경우) - 아래의 예2)의 경우 -
옳지 않은 선지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나오지 않은 경우
	지문, 보기의 내용이 선지에 다르게 나온 경우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란

예2) 지문, 보기 : 철수는 착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2번 선지에도

2번 선지 : 철수는 선하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면 2번 선지는 옳은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같은 뜻 다른 표현이지요. 너무 쉽게 보이지만 이 원리는 매우 자주 출제되면서 수험자들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위의 예를 좀더 헷갈리게 만들겠습니다.

예2) 지문, 보기 : 철수는 착하다

철수는 영희의 아들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2번 선지에

2번 선지 : 영희의 아들은 선하다

이 경우 역시 같은 뜻 다른 표현이 되지요.

여러분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헷갈리는 경우는 대부분 지문, 보기의 내용이 간접적으로 제시된 경우입니다. 즉 같은 뜻의 다른 표현으로 나온 경우 - 앞으로는 이 개념을 **동의이형(同意異形)의 원리**라 부르겠습니다- 를 헷갈리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두 개 이상의 선지가 헷갈린다면 집중적으로 각 선지가 같은 뜻 다른 표현이 쓰였나 안 쓰였나를 따져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 수능문제풀이의 대원칙

내용연결 - 옳은 선지를 고를 때 헛갈리는 경우 : 동의이형(同意異形)의 원리  
옳지 않은 선지 구별할 때 헛갈리는 경우 : 단어의 집중적 의미파악  
(자기생각 조심!)

일단 수능 국어의 모든 문제를 내용연결이라는 대원칙하에 풀 되, 이 때 옳은 선지의 경우와 옳지 않은 선지로 나누어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옳은 선지인가하고 헛갈릴 때에는 동의이형의 원리를, 옳지 않은 선지인가하고 헛갈릴 때에는 단어의 집중적 의미파악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수능국어 단순문(단순한 방법으로 풀리는 문제풀이방법)의 핵심입니다.

#### TIP 1

반드시 잊지 마세요. 4,5등급 이하로 점수가 나오는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막연히 지문 읽고 문제 읽고 보기를 본 다음에 선택지를 보며 '느낌과 감'으로 문제를 푼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감으로 흥한 자 감으로 망합니다. - 그리고 막연히 지문이나 보기를 읽고 선지를 본 다음 무작정 생각을 하고 풀기 전에 선지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지문이나 보기에서 찾으십시오! 국어영역의 99%의 문제는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서 부분적으로 제시됩니다. 잊지 마세요. 지문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여 푸는 문제는 수능국어에서 거의 없습니다. **각 선지의 내용은 지문에 전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1번 선지의 내용은 지문의 1단락에 나오고 2번 선지의 내용은 2단락에 나오는 식이지요. 내가 1번이 답인지 아닌지 헛갈릴 때는 1단락만 보고 1번 선지와 잘 비교하면 답이 나옵니다!! 지문의 다른 곳을 봐봤자 절대 문제를 맞힐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먼저 지문이나 보기를 읽고 선지를 읽은 다음, 조금이라도 선지의 내용이 지문에 나왔나 안 나왔나가 헛갈린다면 다시 지문이나 보기로 가서 그 헛갈리는 선지의 내용을 찾아 내용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일단! 헛갈리는 선지가 있다면 우선은 그 내용을 지문이나 보기에서 찾으십시오! 그 다음에 선지와 같은 내용, 의미인지 생각 하십시오.**

**반드시 내용을 찾은 후에 그것을 바탕으로 생각하십시오.**

- 여기까지 단순문의 핵심개념을 배운 학생들은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 않나'라고 쉽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제 수업의 핵심입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제 그 적용을 배워봅시다.

## 비문학 지문해석방법

비문학 지문을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문(단순한 방법으로 풀리는 지문해석방법)에 맞게 실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로 지문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 학생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비문학 단순문

#### 처음과 끝의 원리

처음과 끝의 원리란 글의 주제는 글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제시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한 단락의 중심문장도 첫 문장과 끝 문장에 많이 제시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단락의 중심내용과 글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며 독해를 하면 됩니다.

#### 단락의 역할

비문학 독해 지문은 보통 4~6개의 단락이 제시됩니다. 이 중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역할(논제제시, 화제제시, 문제제기, 관심·흥미 유발)을 하고 끝 단락은 글의 결론 역할을 합니다. 그 사이의 중간에 있는 단락은 글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 논제 제시

논제란 글의 주제입니다. 글의 주제는 첫 단락 끝 문장에 많이 제시됩니다.

#### 단락의 내용 이해

주어(화제)와 서술어(속성)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갑니다. 중심이 되는 명사를 찾고 그것에 대한 설명(서술어)을 찾아 독해를 하면 됩니다.

#### 단락의 유기적 연결

단락의 유기적 연결이란 각 단락들이 모두 연관이 있는 내용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앞 단락의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 단락이 나온 것이지요.

나머지 방법으로 같은 개념 연결,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추론적 이해 등이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지문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지문해석 개념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방법을 알아보시다.

## 비문학 문제풀이방법 - 근거문장

쓰기파트가 단어 위주의 내용연결이었다면 비문학 독해는 문장 위주의 내용연결입니다. 비문학 문제에서 대부분 선지에 대한 내용은 지문에서 한 문장 형태로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문장을 근거문장이라 부를 것입니다.) 따라서 헛갈리는 선지가 있다면 먼저 그 선지에 대한 **근거문장**을 찾아서 내용을 비교해야 합니다. 이 문제풀이법으로 비문학 독해 문제의 80%가 다 풀립니다. 추론적 사고의 문제든, 구체적 사례의 적용 문제든, 반응의 적절성 여부 문제든 이 방법으로 다 풀립니다. 이제 그 확인을 해봅시다.

### TIP 3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다른 것이 이 근거문장 풀이법입니다. 대부분의 국어영역 선생님들께선 비문학 각 유형마다 문제풀이 방법이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대부분의 비문학 문제를 근거문장 풀이법으로 해결합니다. 이 방법이 좀더 명확하고 손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거문장 풀이법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연결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문학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문제풀이방법이 이런 식으로 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추론적 사고 문제는 지문에 제시된 내용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따라서 지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매우 막연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라는 내용인지 알 수 없지요.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추론적 사고의 문제라도 옳은 선지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이겠지요. 결국 지문의 내용을 담은 선지가 추론적 사고의 문제에서도 옳은 선지가 됩니다. 예전에 칼럼을 올린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비문학의 80%는 모두 내용일치로 접근하라고. 맞는 말입니다. 예로 든 추론적 사고의 문제에서처럼 결국 옳은 것은 지문의 내용을 담은 선지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든지 80%는 내용일치로 접근하면 답을 맞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연결이 비문학에선 근거문장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②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③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④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지문해석 - 굵은 글씨체로 밑줄 친 부분이 각 단락의 중심문장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입니다. 이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락에서 - 비문학 독해 지문의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③단락에서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④단락에서는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설명하고 - 위 ②, ③단락에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사용과 공급에 대한 문제점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④단락에서는 그것에 대한 정부의 대책(해결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⑤단락에서 정부가 대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는

- ① 단락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중요성 - 서론
- ② 단락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특징 1 - 본론
- ③ 단락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특징 2
- ④ 단락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
- ⑤ 단락 :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중요성 (재강조) - 결론

① 단락의 중요 내용

①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대가 지불 = 재화의 효율적 배분)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비효율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해야 함)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공유자원과 공공재는 성격이 다른 재화이며 따라서 예방방법이 다름.)

- 여기에서 효율적 배분이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막 쓰기 때문에 자원이 낭비된다는 얘기다.)

② 단락의 중요 내용

②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①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

패를 예방할 수 있다.

- 공공재의 특징

누구나 쉽게, 공짜로 사용할 수 있고 많이 사용한다고 다른 사람이 사용의 제한을 받지 않음.

문제점 : 대가가 없기 때문에 공급을 할 사람이 나오지 않음 - 정부가 공급함으로써 해결

③ 단락의 중요 내용

③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 공유자원의 특징

공공재와 같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만큼 남이 사용하지 못함.

④ 단락의 중요 내용

④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함부로 쓰는 만큼 없애지 때문에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함.)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각자 사용량을 할당하는 것,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쓰는 양을 돈으로 환산하여 관리하게 하는 법 - 직접 통제방식과의 차이 : 자신이 쓸 양을 자신의 재산-사유재산처럼 사고 팔 수 있다)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국민들이 그 방식을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것)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정부가 통제할 힘이 있는 것-국민들이 정부의 통제를 우습게 알면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의 문제점 해결

공공재 - 정부가 공급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

공유자원 - 합부로 쓰는 만큼 없어지기 때문에 합부로 쓰지 못하게 함. 방법 - 돈을 내게 하든가(비용의 설정) 각자 조금씩만 쓰게 하든가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 이때 사회적 합의(국민들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정부의 능력(국민들이 정부의 통제를 따름)

⑤ 단락의 중요 내용

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정부가 공공재, 공유자원을 잘 관리해서 나라 전체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만들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자세한 해석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단어의 의미 하나하나, 문장의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하며 해석할 시간이 없지요. 다만 독해의 기초실력이 없는 학생(위 정도 난이도의 지문을 두 단락 정도 읽었을 때 하나도 내용이 이해 안 되는 학생)이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천천히 지문을 위와 같이 세밀하게 이해하며 읽는 연습을 하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심내용 정도(글의 체제, 논제, 각 단락의 중심내용) 파악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실전에서 위와 같이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가 안 되는 단락이나 지문은 세밀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지요. 저는 지문해석보다는 문제풀이에 더 치중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지문해석을 꼼꼼히 한다고 무조건 문제를 다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문장 찾기 훈련 (위에서 설명한 근거문장의 원리대로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시장실패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 ② 공공재와 달리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 ③ 공유자원의 비극은 재화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 ⑤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 문제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 배운 근거문장 찾는 훈련을 익히는 문제로 수록하였습니다.

답 2

문제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① 시장실패는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첫 번째 단락 3~4줄 -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 실패라 하는데,

(결국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 시장실패라는 뜻)

② 공공재와 달리 공유자원은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세 번째 단락 첫 문장 -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③ **공유자원의 비극**은 재화의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세 번째 단락 2줄, -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마지막 줄 -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희소성 - 동의이형의 원리[같은 뜻 다른 표현]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 희소성하고 풀이 제한된 것은 같은 뜻이다. 따라서 근거문장에 따라 희소성이 있는 것 때문에 비극을 발생하는 것이다. )

④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을 심화시킨다.

네 번째 단락 1줄, 8~9줄 -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시장실패 예방 - 정부의 시장 개입을 통한 대책)

⑤ 공공재는 정부가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단락 끝문장 -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위 해설의 굵은 글씨 부분이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문장을 찾는 **핵심 단어**들입니다. 지문의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여러분 빨리 각 선지에 해당하는 근거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근거문장 풀이법이 내용일치 문제유형이 아닌 다른 문제에도 적용되는지 봅시다.

대부분의 재화는 시장 원리에 따라 소비자가 대가를 지불하고 공급자가 그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등대,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나 깨끗한 공기, 바다 속의 물고기와 같은 공유자원은 재화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재화가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한다. 이와 같은 경우를 시장실패라 하는데,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방법은 재화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공재와 공유자원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는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를 말한다. 배제성이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경합성이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해안가에 세운 등대가 주는 혜택을 특정한 개인이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없고, 한 사람이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편익이 줄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등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재가 배제성이 없다는 것은 재화를 생산하더라도 그것을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므로 누구도 공공재를 공급하려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따져 공공재를 공급함으로써 시장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공유자원은 공공재와 같이 배제성이 없어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이다. 이에 따라 '공유자원의 비극'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다고 하자. 소 주인들은 공짜로 풀을 먹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소를 몰고 와서 먹이려고 할 것이다. 자기 소를 한 마리 더 들여와 목초지가 점점 훼손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불이익은 목초지를 이용하는 모든 소 주인들이 함께 나누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초지의 풀은 제한되어 있어 어느 수준 이상의 소가 들어오면 목초지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공공재에 의한 시장실패는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쉽게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위의 예와 같이 개인들이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려고 경합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화의 경합성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예방책이 필요하다. 그 구체적인 예방책으로는 정부가 공유자원의 사용을 직접 통제하거나 공유자원에 사유 재산권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부의 직접 통제는 정부가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이다. 사유 재산권 부여는 자신의 재산을 잘 관리하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이용하여 공유자원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공유자원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두 방법은 정부의 시장 개입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통제 방식이나 절차, 사유 재산권 배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정부의 통제 능력과 개인의 사유재산 관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의한 시장실패는 자원의 왜곡된 배분을 가져와 사회 전체의 효용을 감소시킨다. 또한 재화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화를 공급하여 얻는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시장실패가 초래하는 비극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구성원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이 되어야 한다.

2. ㉢에서 언급된 해결 방안이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 ㉠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렵 허가 지역을 운영한다.
- ㉡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범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
- ㉢ 국립공원의 환경과피를 막기 위해 이용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부 등산로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 ㉣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 ㉤ 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 그물 사용을 금지한다.

㉠특정 장비 사용의 제한, 사용 시간이나 장소의 할당, 이용 단위나 비용의 설정 등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

2. ㉠에서 언급된 해결 방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점]

- ① 야생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수렵할 수 있도록 하는 수렵 허가 지역을 운영한다.
- ②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우범 지역마다 CCTV를 설치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한다. 동의이형(同意異形)의 원리 = 감시
- ③ 국립공원의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이용 예약제를 실시하고, 일부 등산로에 대해 휴식년제를 도입한다.
- ④ 도심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들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 ⑤ 어장이 황폐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바다 밑바닥을 훑으며 고기를 잡는 저인망 그물 사용을 금지한다.

답 2

문제 풀이핵심방법 : 단어 위주의 내용 연결, 밑줄 친 문제 풀이방법

☉ 밑줄 친 문제 풀이방법

밑 줄 친 문제는 근거를 바로 밑 줄 친 부분에서 찾거나 그 근처의 문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의 밑줄 친 부분은 각 선지의 내용에 대응합니다. 각각 장소, 시간, 비용, 특정 장비에 대한 내용이지요. 2번만이 ㉠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위주의 내용의 연관성 파악(공통점이 있는 선지를 연결해 나가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댄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②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③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 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압력)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④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⑤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지문해석 - 굵은 글씨체로 밑줄 친 부분이 각 단락의 중심문장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터치스크린입니다. 이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락에서 - 비문학 독해 지문의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터치스크린의 정의와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③단락에서 각각 접촉식과 저항막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네요. ④단락에서 이러한 터치스크린의 한계를 설명하고 마지막 ⑤단락에서 한계를 보완할 긍정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글의 구조는

- ① 단락 : 터치스크린의 정의와 종류 (접촉식과 저항막 방식) -서론
- ② 단락 : 접촉식 방식의 원리 -본론
- ③ 단락 : 저항막 방식의 원리
- ④ 단락 : 터치스크린의 한계
- ⑤ 단락 : 터치스크린에 대한 전망 -결론

-근거문장 찾기 훈련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현금지급기, 휴대 전화, 게임기 등을 보면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메뉴를 누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다. 이들 기기들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위의 특정 부위를 누르기만 하면 그에 해당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별도의 입력 장치를 두지 않고 스크린 위를 눌러 기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터치스크린이라고 한다.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식으로 접촉식 방식과 저항막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팅된 유리 표면을 접촉하면 전류의 일부가 사용자의 체내에 흡수된다. 그러면 접촉된 부분의 전류량에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터치스크린은 접촉 위치를 분석해 필요한 명령을 수행한다.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정전기와 같은 미세한 전류량의 변화도 감지하기 때문에 살짝만 접촉해도 반응을 하는데, 장갑을 끼고 접촉하면 사람의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없어 반응하지 않는다.

저항막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판 위에 저항막을 입히고 그 위에 덮어씌운 특수 필름 안쪽에도 저항막을 입힌 형태이다. 유리판과 특수 필름 사이에는 절연봉이 있어 유리판과 특수 필름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저항막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어 손가락이나 펜으로 스크린에 접촉하면 특수 필름의 저항막이 유리판 위의 저항막에 닿으면서 전압이 변하게 되고 이를 통해 접촉 위치를 감지한다. 저항막 방식은 손에 장갑을 낀 상태로도 작동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공장자동화 장비나 의료 장비 등에 많이 쓰인다.

기존의 터치스크린은 동시에 여러 정보를 입력하기가 어려웠고 점 이외의 정보를 인식하지 못했으나, 최근에 출시된 터치스크린은 다중 입력이 가능하고 선이나 면 등도 인식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선과 면을 정교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입력 속도 면에서 키보드나 마우스의 성능을 넘어서지 못하고, 가격이 비싸 소비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터치스크린이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터치스크린의 앞날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단점이 보완될 수 있다는 사실 외에도 차세대 영상 장치인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이 기본적으로 내장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고 있다. 구부리거나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용 가능성은 터치스크린이 현재보다 미래에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란 사실을 보여 준다.

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터치스크린 기술의 핵심은 누르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있다.
- ②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다.
- ③ 터치스크린은 전자종이의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 ④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 양면에 전도성 금속이 코팅되어 있다.
- ⑤ 저항막 방식은 접촉식 방식에 비해 정전기 등의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답 1

문제 풀이 핵심 방법 : 근거문장, 단어의 집중적 의미 파악

㉠ 단어의 집중적 의미 파악

선지의 내용 중 단어 몇 개의 의미만을 따져서 옳지 않은 선지를 골라내는 방법

① 터치스크린 기술의 핵심은 누르는 강도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있다.

근거문장은 첫 번째 단락 4줄 - 터치스크린의 핵심 기술은 스크린의 특정 부위에 손가락이나 펜 등을 댔을 때, 이 사실을 감지하게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선지의 '강도의 차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②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한다.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 접촉식 방식은 사람 몸이 전류를 흡수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한다.

③ 터치스크린은 전자종이의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만들 수 있다.

다섯 번째 단락 3~4줄 - 구부리거나 들들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전자종이에 터치스크린 기술이 적용되면, 전자종이는 보다 편리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④ 접촉식 방식의 터치스크린은 유리 양면에 전도성 금속이 코팅되어 있다.

두 번째 단락 2줄 - 유리의 양면에 얇고 투명한 특수 전도성 금속을 코팅하고 그 부위에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도록 한다.

⑤ 저항막 방식은 접촉식 방식에 비해 정전기 등의 외적 요인의 영향을 덜 받는다.

세 번째 단락 끝문장 - 정전기와 같은 외적 요인의 영향을 접촉식보다 덜 받아 불필요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③ ㉠**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도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④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드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⑤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지문해석 - 굵은 글씨체로 밑줄 친 부분이 각 단락의 중심문장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호흡입니다. 이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락에서 - 비문학 독해 지문의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호흡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③, ④단락에서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포화와 해리반응이 있다고 하지요. 이 지문은 본론의 구성이 다른 지문과 달리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집니다. 호흡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②단락에서 산소가 유입되는 상황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소가 이산화탄소와 교환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호흡에서 중요한 반응인 포화와 해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③단락까지 포화와 해리반응에 대해 설명하다가 ④단락에서는 다시 ②단락의 내용을 이어 받아 호흡의 과정을 세포에 이동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⑤단락에서는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                       |     |
|-----------------------|-----|
| ① 단락 : 호흡의 정의         | -서론 |
| ② 단락 :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1  | -본론 |
| ③ 단락 : 포화반응과 해리반응의 특징 |     |
| ④ 단락 : 호흡이 일어나는 과정 2  |     |
| ⑤ 단락 : 호흡의 중요성        | -결론 |

-근거문장 찾기 훈련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① 모든 동물에게 공통되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숨 쉬기는 동물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활동이다. 숨을 쉬지 못하면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지 못해 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생명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생명 활동에 중요한 호흡은 과학적 개념으로 볼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②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온 산소는 폐포에서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어 신체의 각 조직세포로 운반된 후 분리된다.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각 조직세포로 실어 나르는 수송차이다. 헤모글로빈은 철을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로 붉은색을 띤다. 헤모글로빈 1분자는 최대로 산소 4분자까지 결합한다. 이처럼 헤모글로빈과 산소가 결합하는 것을 포화반응이라고 하며, 그 결합물을 산소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 반면에 각 조직세포로 이동한 산소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분리되는 것을 해리반응이라고 한다.

③ ①포화반응은 산소가 많고 이산화탄소가 적은 환경에서 잘 일어난다. 또한 포화반응은 혈액의 pH(수소이온농도지수)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혈액의 pH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온도에 포화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해리반응은 포화반응과 반대로,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며 pH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잘 일어난다.

④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면 그 안에서 발전소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산소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분해해 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렇게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먼저 혈액 내 적혈구로 들어가서 녹아 탄산이 되었다가 수소양이온과 탄산음이온으로 분리된다. 분리된 탄산음이온은 적혈구를 빠져나와 혈장에 용해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에서는 탄산음이온이 다시 적혈구로 들어가 이산화탄소가 된다. 이는 탄산이 녹아 있는 사이타와 콜라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이산화탄소는 폐에서 체외로 배출된다.

⑤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이를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받기 위한 호흡 충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는 일이 생명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해 준다.

4. <보기>에 제시된 ㄱ~ㄴ의 상황에서 ㉠이 일어나는 비율의 변화를 바르게 정리한 것은?

< 보 기 >

- ㄱ.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한동안 숨을 참고 있을 때
- ㄴ.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가 찬바람을 쐬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 ㄷ. 숨이 가쁠 정도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ㄱ	ㄴ	ㄷ
①	증가	증가	감소
②	증가	감소	증가
③	감소	증가	증가
④	감소	감소	증가
⑤	감소	증가	감소

답 5

문제 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단어의 집중적 의미파악

㉠ 단어의 집중적 의미파악

선지의 내용 중 단어 몇 개의 의미만을 따져서 옳지 않은 선지를 골라내는 방법

이 문제는 ㄱ, ㄴ, ㄷ이 그대로 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지 대신 ㄱ, ㄴ, ㄷ의 근거문장을 찾겠습니다.

ㄱ. 물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한동안 숨을 참고 있을 때

ㄱ의 근거문장은 다섯 번째 단락 1~2줄 - 숨을 쉬지 못하면 체내로 산소가 유입되지 않고 체외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게 된다. 그렇게 되면 체내에서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세 번째 단락 3~4줄 - 이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치보다 증가하게 되면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ㄱ의 숨을 참고 있을 때 = 숨을 쉬지 못하면 (**동의이형(同意異形)의 원리** - 같은 뜻 다른 표현)

→ 이산화탄소 농도 높아짐 → 포화반응이 일어나는 비율도 줄어들게 된다. (포화반응 감소)

결국 ㄱ은 숨을 참고 있을 때 포화반응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데 근거문장에서는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포화반응 비율이 줄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ㄱ은 감소입니다.

ㄴ. 실내에 있다가 추운 실외로 나가 찬바람을 쐬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ㄴ의 근거문장은 세 번째 단락 6줄 - 온도가 낮을수록 포화반응이 잘 일어난다.

ㄷ. 숨이 가쁠 정도로 격한 운동을 했을 때

ㄷ의 근거문장은 세 번째 단락 4~5줄 - 간혹 숨을 헐떡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체내의 이산화탄소를 체외로 배출해 (낮은)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근거문장의 포화반응 비율을 정상적인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헐떡이기 전의 상태는 포화반응 비율이 낮은 상태임. ㄷ은 가쁠 정도로 격한 운동을 했을 때라고 했지 숨을 가쁘게 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증가가 아니다.

ㄱ도 ‘이는 호흡을 통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다.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포화반응의 비율이 원래 낮았다는 것이다.

높이기 위한 것이니 점점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ㄷ에 ‘격한 운동을 했을 때’라고 되어 있지요. ‘했을 때’이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면서 회복하는 과정이 아닌 딱 포화반응이 낮게 된 상태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가 되지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Q가 70이 채 안 되는 13살 소년 A는 혼자서 옷의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그리스 어, 터키 어 등 20여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이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자국어인 영어로 손쉽게 번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촘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여타의 인지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 ㉠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게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고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뇌의 일부분이 언어능력과 연관있다는 예 (베르니케, 브로카)

현재 밝혀진 바로는 뇌의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동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

- 뇌의 일부분이 언어능력과 관련있기 때문에 신경세포 때문에 회복할 수 있고 단어마다 역시 담당하는 뇌부분도 다름.

지문해석 - 굵은 글씨체로 밑줄 친 부분이 각 단락의 중심문장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실어증 사례를 통해 살펴본 인간의 언어능력입니다. 이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락에서 - 비문학 독해 지문의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단락에서 첫 단락의 - 인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은 관련이 없다는 -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어증의 종류와 특성을 ③, ④, ⑤단락에서 설명하고 마지막 ⑥단락에서 언어능력과 뇌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언어능력에 관여하는 뇌 기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실어증의 두 종류를 예를 들며 뇌의 부분적인 장애에 따른 실어증의 양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 |                            |     |
|----------------------------|-----|
| ① 단락 : 인간의 인지능력과 언어능력과의 관계 | -서론 |
| ② 단락 : ① 단락 강조             |     |
| ③ 단락 : 베르니케 실어증의 특징        | -본론 |
| ④ 단락 : 베르니케 실어증의 예         |     |
| ⑤ 단락 : 브로카 실어증의 특징         |     |
| ⑥ 단락 : 뇌와 인간의 언어 능력의 관계    | -결론 |

-근거문장 찾기 훈련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IQ가 70이 채 안 되는 13살 소년 A는 혼자서 옷의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그리스 어, 터키 어 등 20여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이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자국어인 영어로 손쉽게 번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촘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여타의 인지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 ㉠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게지요, 아니 아니 게에 가깝기는 한데, 물고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뇌의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동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

## 6.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도 유창한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다.
- ② 실어증 환자를 통해 인간의 좌뇌가 언어 능력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 ③ 실어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 ④ 인간의 뇌에서 어휘 형성과 문장 생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각각 다르다.
- 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세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6. 위 글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답 3

문제 풀이 핵심방법 : 근거문장, 나오지 않은 내용

① 인지 능력이 부족한 아동도 유창한 언어 능력을 지닐 수 있다.

첫 단락 4~5줄 :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촘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실어증 환자를 통해 인간의 좌뇌가 언어 능력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단락 1~2줄 :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실어증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정답 : 나오지 않은 내용

④ 인간의 뇌에서 어휘 형성과 문장 생성을 담당하는 부위는 각각 다르다.

끝 단락 3~4줄 :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⑤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신경 세포가 손상된 실어증 환자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

끝 단락 2~3줄 :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근거문장 찾기 훈련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IQ가 70이 채 안 되는 13살 소년 A는 혼자서 옷의 단추도 채우지 못하고 손톱도 깎지 못한다. 그러나 그는 프랑스 어, 이탈리아 어, 스페인 어, 그리스 어, 터키 어 등 20여 개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이들 외국어로 쓰인 글을 자국어인 영어로 손쉽게 번역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언어 능력이 다른 인지 능력과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능력이라는 촘스키의 가설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계에 보고된 두 가지 유형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살펴보면, 인간의 좌뇌에 언어를 담당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의 언어 능력이 여타의 인지 능력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음을 말해 준다.

실어증 환자 중에는 억양이나 발음이 정상적이어서 얼핏 듣기에는 매우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어휘를 잘못 사용하거나 종종 의미 없는 어휘들을 사용하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가 있다. 이런 환자의 또 다른 특징은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하지만, 특이하게도 ( ㉠ )는 것이다. 이 유형의 환자들은 1874년 칼 베르니케의 논문에서 처음 보고되었는데, 이들은 좌뇌의 뒷부분(베르니케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는 일상적인 간단한 명사를 완곡하게 돌려서 말하는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면 ‘물’이란 말 대신에 ‘마시는 것’, 또 ‘코’ 대신에 ‘냄새를 맡는 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실제로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에게 물고기 그림을 보여 주고 무엇인지 말하도록 실험을 했더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A] “그것이 뭔지 알지만 말할 수가 없군요. 그건 물속에 있고, 그걸 잡는 건 재미있죠. 휴가에 말이죠. 그건 동물은 아니지만 동물에 가깝지요. 먹기도 좋구요. 그건 계지요, 아니 아니 계에 가깝기는 한데, 물고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

실어증 환자 중에는 베르니케 실어증 환자와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단어를 의미에 맞게 사용하지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경우이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알려진 이런 유형의 실어증 환자는 더듬거리며 말을 한다. 또한 조사와 같은 기능적 어휘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적절한 단어 선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1861년 폴 브로카에 의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된 이들 환자의 뇌를 부검한 결과 좌뇌의 앞부분(브로카 영역)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뇌의 어느 한쪽에 손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좌뇌와 우뇌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에 의해 어느 정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그 신경세포가 손상된 경우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명사나 동사, 어휘 형성, 문장 생성 등 언어의 여러 측면을 담당하는 뇌 부분이 각각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문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문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동사를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된 환자는 동사를 ㉡말하지 못하게 된다.

7. [A]와 관련지어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순이 정확하지 않다
- ② 간단한 핵심 단어만 사용한다
- ③ 명사를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 ④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빠뜨린다
- ⑤ 용언의 어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7. [A]와 관련지어 볼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3

문제 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이 문제의 핵심적인 근거문장은 [A]에 있는 ‘물괴기인가, 맞아요 물고기! 바로 그거예요.’입니다.  
이 말은 명사를 잘 기억하지 못한 것이지요.

① 어순이 정확하지 않다

- 세 번째 단락 3줄 : 문법적으로 비교적 정확한 문장을 구사

② 간단한 핵심 단어만 사용한다

- [A] 밑의 3줄 : 간단한 핵심어만 사용하며 (브로카 실어증의 특징)

③ 명사를 잘 기억해 내지 못한다

④ 문장에서 일부 단어를 빠뜨린다

⑤ 용언의 어미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 ④, ⑤ : 나오지 않은 내용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라고 한다. OX 퀴즈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따르는 것도 일종의 동조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식사를 할 때 여행객들은 대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마련이다. 식당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대개 활발하게 거리 유세를 하며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곧 지지자들의 열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정보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 지지자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더 나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봄비는 가게를 찾고, 같은 농담을 즐기며,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조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지문해석 - 굵은 글씨체로 밑줄 친 부분이 각 단락의 중심문장입니다.

이 글의 제재는 동조입니다. 이 제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첫 단락에서 - 비문학 독해 지문의 첫 단락은 글의 서론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조의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②, ③단락에서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며 ④단락에서는 동조의 강도가 다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동조의 긍정적 기능과 역할을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 |   |     |
|---|-----|
| ① 단락 : 동조의 정의                             | -서론 |
| ② 단락 :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1,2                    | -본론 |
| ③ 단락 :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 두 개의 이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     |
| ④ 단락 : 동조의 강도가 다른 원인                      |     |
| ⑤ 단락 : 동조의 의의(가치)                         | -결론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라고 한다. OX 퀴즈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따르는 것도 일종의 동조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식사를 할 때 여행객들은 대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마련이다. 식당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대개 활발하게 거리 유세를 하며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곧 지지자들의 열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정보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 지지자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더 나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붐비는 가게를 찾고, 같은 농담을 즐기며,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조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8.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 ① 동조의 강도는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가?
- ② 동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 ③ 사람들의 동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④ 항상 타인의 생각에 동의해야만 동조가 일어나는 것일까?
- ⑤ 동조 현상은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가?

8. 위 글을 통해 답을 구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닌 것은?

답 3

문제 풀이 핵심방법 : 근거문장, 나오지 않은 내용

이 문제는 ①, ②, ⑤번의 근거문장이 단락의 중심문장들입니다. 위 지문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 ① 동조의 강도는 어떤 경우에 달라지는가?
- ② 동조 현상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 ③ 사람들의 동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나오지 않은 내용

- ④ 항상 타인의 생각에 동의해야만 동조가 일어나는 것일까?

-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 :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 ⑤ 동조 현상은 생활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는가?

-근거문장 찾기 훈련 (근거문장을 찾아 밑줄을 그으며 문제를 푸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라고 한다. OX 퀴즈에서 답을 잘 모를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쪽을 따르는 것도 일종의 동조이다.

심리학에서는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낯선 지역을 여행하던 중에 식사를 할 때 여행객들은 대개 손님들로 북적거리는 식당을 찾게 마련이다. 식당이 북적거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는 위의 두 가지 이유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선거에서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대개 활발하게 거리 유세를 하며 좀 더 많은 지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 곧 지지자들의 열렬한 태도가 다른 사람들도 그 후보를 지지하도록 이끄는 정보로 작용한 것이다. 이때 지지자 집단의 규모가 클수록 지지를 이끌어 내는 데에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고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별 생각 없이 따라 하는 것처럼, 동조 현상은 부정적인 경우에도 일어난다. 그러나 정류장에서 차례로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처럼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동조는 개인으로 하여금 정보 부족 상태에서 좀 더 나은 판단이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가 하면, 사회적으로는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붐비는 가게를 찾고, 같은 농담을 즐기며, 유행하는 옷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이나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도 동조는 적절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9. 위 글에 언급된 ‘동조’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합리적 결과에 승복하여 따르는 것
- ② 포용적인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따르는 것
- ③ 타인의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 ④ 부정적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
- ⑤ 정보 부족이나 집단 압력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것

9. 위 글에 언급된 '동조'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한 것은?

답 5

문제 풀이핵심방법 : 근거문장, 나오지 않은 내용

- ①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합리적 결과에 승복하여 따르는 것
  - 마지막 단락의 내용에 무단횡단에 대한 예가 나왔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선지
- ② 포용적인 마음가짐으로 타인의 제안을 수용하여 따르는 것
  - 남의 감싸주는 포용적인 태도에 대한 내용이 없음. (나오지 않은 내용)
- ③ 타인의 고충을 해결해 줌으로써 그들이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
  - 나오지 않은 내용
- ④ 부정적 사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단의 힘을 이용하는 것
  - 나오지 않은 내용
- ⑤ 정보 부족이나 집단 압력으로 인해 타인의 행동을 따르는 것
  - 두 번째 단락의 동조가 일어나는 이유 1,2가 근거문장임.

여기까지 근거문장을 이용하여 푸는 기본적인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방법의 핵심은 일단 헛갈리는 선지에 해당하는 문장을 지문에서 찾아서 그 후에 같은 내용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문장 풀이법은 비문학의 모든 문제를 푸는 근간이 되므로 반드시 잘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